

남도는 지금 해당화 물결

신안 증도·영광 백수해안도로·함평 월천 방조제 등 군락지 만개

전남지역에 해당화가 피어나면서 사진작가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주로 섬이나 해안가에 많이 피어나는 해당화는 최근 남도 이곳 저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꽃말이 '은화와 원망'인 해당화는 옛부터 많은 선비들로부터 사랑받는 꽃으로 시나 노래, 그림의 소재가 돼 왔다.

해당화는 바닷가의 모래밭이나 산기슭에서 자라는 장미과의 떨기나무로 5~7월에 짙은 홍색의 다섯 잎 꽃이 피는데 향기가 좋아 향수의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신안 증도=천일염전이 많은 신안 증도의 솔밭 등 공원과 우전해수욕장 인근에 해당화가 군락을 이뤄 자생하고 있다.

해당화 꽃은 우전해수욕장을 배경으로 노을지는 석양빛에 더욱 붉은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6월부터 7월 사이 증도를 방문하면 섬 곳곳에서 해당화를 만날 수 있다.

늦봄부터 피기 시작해 초여름에 절정을 이루다가 여름이 다 갈 무렵 방울토마토 크기의 붉은 열매를 맺는데 6월에 가장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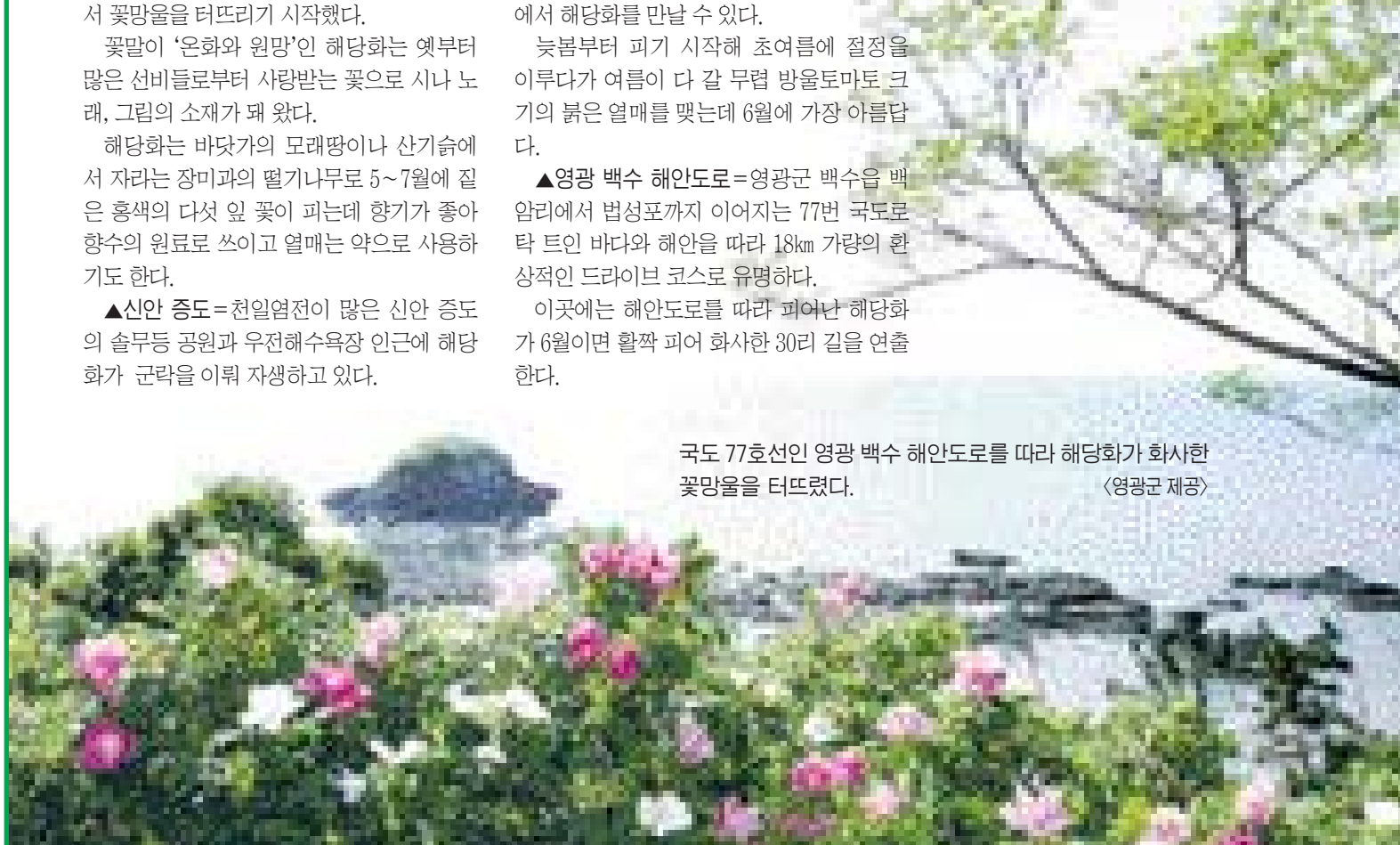
▲영광 백수 해안도로=영광군 백수읍 백암리에서 법성포까지 이어지는 77번 국도로 탁 트인 바다와 해안을 따라 18km 가량의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해안도로를 따라 피어난 해당화가 6월이면 활짝 피어 화사한 30리 길을 연출한다.

▲함평 손불면 월천방조제=함평군 손불면 주요 도로변과 월천방조제 해안도로 2km에 심어진 6만여 그루의 진분홍빛 해당화가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두 송이씩 피어나기 시작한 해당화는 이달 중 대부분 만개해 7월까지 바다가 분홍빛으로 물들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국도 77호선인 영광 백수 해안도로를 따라 해당화가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렸다. (영광군 제공)

영광원전 '지원사업비' 뜨거운 감자?

年 100억원 배분 사고 '원전-군-의회-주민'들 갈등 주민들 '원전측이 임의 사용... 사용 내역 투명 공개'를

가동 23년을 맞은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본부(이하 영광원전)가 최근 방사능 기체 누출 사고와 지원사업비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영광군·의회,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군 의회는 17일 원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전 간부들을 상대로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 ▲원전 5호기 방사능 기체 누출 ▲원전 배수로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영광원전과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 추궁했다.

지원사업비 배분 문제는 영광원전과 영광군이 팽팽히 맞서 있는 지역

의 최대 현안이다. 매년 영광군에 지급되는 190억원 가량의 지원사업비 가운데 지역위원회 협의의 거처야 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약 50%)의 사용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영광원전이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원전 측 임의로 '눈 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지원사업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발전기 고장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갈등도 확산

되고 있다. 영광원전 측은 최근 수년간 연 평균 3차례 안팎의 고장이 확인됐으며 이로 인한 방사성 물질의 누출도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방사능 누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측이 위험 가능성을 축소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도 정기 보수작업 후 재가동 중이던 원전 5호기에서 50여 분간 법정한도 이하의 방사능 기체가 누출됐으나 영광원전 측은 누출 사실을 알리기 보다는 '적정할 수준이 아니다'는 해명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관련, 온배수 피해를 주장하는 어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희망의 전화 129번으로 전화주세요"

나주 긴급지원제 확대...올 34세대 4천5백만원 지원

나주시가 울들어 지난 5월까지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에 처한 34 세대에 4천5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긴급지원제는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가구 구성원들이 소득이 없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곤란을 겪을때 지원한다.

지원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보면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재산 7천800만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한다.

나주시는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읍·면·동마다 2명씩의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다.

김태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폭 긴급지원 사유가 아니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반 시민도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발견되면 신속히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긴급지원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129)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농업인-도시민 상생 '토요 농민장터' 성공 예감

첫 2회 판매고 4천6백만원 ... 전남도, 21개 시·군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토요 농민장터'에 전남도에 21개 시·군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최근 개장한 '토요 농민장터'가 많은 관심 속에 높은 판매고를 올려 조기 활성화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농산물 생산량이 적은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농민장터' 운영규모를 확대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이틀간 광주를 비롯해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등 5곳에서 17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두 번째 농민장터가 열렸

다. 지난 6일 첫 번째 농민장터에 12개 시군이 참여한 것에 비해 5개 시군이 늘어난 것이다.

매출액도 증가해 지난 6일 농민장터에서 하루 2천1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반면 지난 14일에는 2천5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광주지역에 전남도내 서부권 시군이 참여하는 농민장터를 1곳을 추가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농민장터가 개장 초기부터 인기를 끈 것은 대형 할인매장이나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통비용과 판매수수료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시중가보다 최소 20%이상 싼 값에 판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는 개장 일자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조정하고 다양한 상품 준비 및 농협과 공동 운영, 도산 대량 소비처에 대한 판촉활동 전개 등 농민장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 할인 판매일을 미리 지정고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 시장 유통업체와 가격 차별화를 확고히 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장터의 차별화를 위해 생산자 실명제, 가격표시제 및 리플제, 장터 청결, 법적 계량기 사용, 상품 규격화 강화 등 소비자 만족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동자개' 특화품목 육성

장성 2년간 16농가에 3억 지원

장성군이 토산어종인 동자개(일명 빠가사리)를 특화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장성군은 고소득 품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자개를 특화품목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16 농가에 3억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동자개는 m당 2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고소득 품목으로 장성에 사는 현재 10ha에 24 농가가 양식을 하고 있다.

군은 고품질의 동자개 생산을 위해 전남대수면시험장의 협조를 얻어 사육기술·질병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성=정철수기자 bungy@



'뽕꿀 해남' 홍보 차량 운행 시작

해남군이 '뽕꿀 해남'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군내 관광 버스 15대와 택시 238대에 지역내 주요 관광지 광고판을 부착했다. 해남군은 또 직원들이 타 시·군으로 출장 갈 때 지역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용차량에도 광고판을 부착했다. (해남군 제공)

www.일중한의원.com

일중한의원

진료분야: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피부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방사선과, 응급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외과, 한방소아과, 한방산부인과, 한방안과, 한방이비인후과, 한방영상의학과, 한방영상의학과, 한방영상의학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1 (남산동 1-1번지) 111호

전화: 062-676-1075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A/S까지 최고의 품질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유일정공(주)

주요 사업: 건축설계, 시공, 유지보수, 인테리어, 환경설계, 토목설계, 기계설계, 전기설계, 소방설계, 방화설계, 방음설계, 방진설계, 방열설계, 방습설계, 방충설계, 방파설계, 방서설계, 방진설계, 방열설계, 방습설계, 방충설계, 방파설계, 방서설계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산동 1-1 (남산동 1-1번지) 111호

전화: 062-676-1075